

# 한전, 콜로라도 발전소 인수 미국 진출 물꼬

### 태양광발전소 본격 운영

### 25년간 2500억원 매출

###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추진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미국 콜로라도주(州)에 있는 30MW급 태양광발전소를 인수했다. 한전이 미국 전력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한전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칼라리그롭의 자회사인 코젠트릭스 솔라 홀딩스로부터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 인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북미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을 확보해 해외 사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으로 조성된 코퍼펀드와 함께 콜로라도 알라모사 카운티 소재 30MW급 태양광발전소 지분을 100% 인수했으며 설비·유지 보수는 한전이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생산된 전력은 (콜로라도전력)에 전량 판매되며 사업 기간(25년) 2억3000만 달러(약 2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내 유휴부지에 폐널을 증설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기자재를 활용해 150억원가량의 수출



한전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 인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한전 제공>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번 인수는 지난 1995년 필리핀 말라야 발전소 성능복구 및 운영사업으로 해외 사업을 시작한 후 한전이 세계 최대 전력시장인 미국에 최초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전은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 인수를

계기로 국내 기자재업체들과 북미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신사업 등 신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현재 전 세계 24개국에서 화력, 원자력,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등 다양한 해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전체 매출의 8.

2%인 해외부분의 비중을 2025년까지 전체 매출의 4분의 1이 넘는 27%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발전소를 직접 방문해 현지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른 시일 안에 사업을 안정시켜달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aT, 일본 규슈대와 농식품 공동 연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최근 일본 국립대학법인 규슈대학교와 한국 농식품 공동 연구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aT는 이날 일본 규슈대학교와 한국 농식품의 기능성 가치 향상을 위한 학술적 공동연구 협력 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일본 내에서 높은 신뢰도를 지닌 국립대학에 의한 한국 농식품의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대일 수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포인트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미래클 K-FOOD 프로젝트 품목을 중심으로 대일본 수출 가능

성이 높은 5~7품목을 선정해 제안한 후, 기능성에 대한 검증, 일본산 유사상품과의 비교연구 등을 통한 상품별 기초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상품별 기초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성분 분석, 모니터링 임상시험 등을 추진해 해당 기능성과 마케팅 포인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나갈다는 방침이다.

aT 백진석 식품수출부장은 “현지의 신뢰도 높은 대학 등과의 공동 연구 추진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 재발견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향후에도 미래클 K-FOOD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신규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전남 1분기 무역 흑자 3조5000억

올해 1분기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며 두자릿수로 증가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가 30억7000만 달러(약 3조5041억원)를 기록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1분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자료에 따르면 1분기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6% 증가한 115억6000만 달러에 수입은 41.9% 증가한 84억8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30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36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42.1% 비중을 차지한 자동차가 SUV(스포츠투유틸리티 차량)와 상용차 등 대형차 수출 확대로 8.4% 증가했으며 반도체도 지속적인 메모리 수요와 단가 상승으로 수출을 이끌었다.

전남지역 수출은 79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7% 증가했다.

선박을 제외한 10대 주력 품목이 모두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경우(54.5%), 제트유(50.2%)등을 중심으로 석유제품이 수출단가 상승에 힘입어 44.5% 증가했다. 합성수지, 기초유분 등 석유화학 품목 역시 각각 20.3%, 64.1% 증가했다.

주동력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광주·전남 수출이 최근 몇 년간 감소세였는데 1분기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수출회복의 신호탄”이라며 “광주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품목이, 전남은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이 대중국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출업체 및착지원을 강화해 수출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곡물 유통 전문가 교육

### aT, 다음달 15~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은 오는 5월 15일~17일 경기도 수원시의 이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국제곡물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연간 1500만톤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곡물자급 현실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기상이변과 곡물 수요 상승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민간 주도로 국제 곡물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개설되었다.

해외 곡물시장 정보 및 수급전망 전망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 수입과 유통경험이 풍부한 한국사료협회, 그리고 주요 곡물유통회사 등의 전문가가 곡물 수입 실무 강의와 함께 다양한 곡물 구매 사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곡물 엘리베이터 현장견학 등의 실습교육도 함께 편성되어 있다.

교육비는 3만4000원의 자부담금만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운영부(031-400-3524)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해양수산부와 aT는 20일 완도 농어문화체육센터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한국산 수산물의 가치를 해외에 알렸다.

## aT, 완도 해조류박람회 11개국 수출상담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20일 완도 농어문화체육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수산물전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 14일 개막한 ‘2017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와 연계해 전 세

계 11개국에서 37개사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한국산 해조류 및 수산물의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 상담회와 더불어 전북 수출협회와 바이어 간 MOU 체결식, 바이어 리셉션, 전복양식장 및 김 가공시설 방문 등 산지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이점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aT 구자성 수산수출부장은 “완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해조류 양식의 천혜의 저지”라면서 “김의 생산 및 수출 1위 국가가 우리나라인 만큼 한국산 해조류의 경쟁력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건강식품인 한국산 해조류의 가치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더 널리 전달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혁신도시협의회 “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와야”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 지난 19일 신설 공공기관을 전국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해 달라고 각 정당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 시장은 “혁신도시 출범이 상당 기간 지났는데도 총사자의 동반이주(전국 평균 30.6%), 지역 인제 채용(전국평균 13.2%), 연관기업의 동반 이전 미흡 등 성과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혁신도시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 7월 이후 신설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61곳을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의 이러한 건의는 전국혁신도시

협의회 소속 12개 회원 도시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

그는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법률적 근거도 제시했다.

전국 혁신도시 제도약과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이번 대선공약과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

2007년에 제정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115곳이 이전했다.

연합뉴스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참숯구이 전문점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